

가족개발을 통한 빈곤문제해결에 관한 연구*

나 동 석**

- I. 문제제기
- II. 임파워먼트와 가족
- III. 가족개발
- IV. 결론

I. 문제제기

빈곤문제해결은 사회복지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분야로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빈곤은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정부의 자활대책으로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직업훈련사업, 생업자금융자사업, 취로구호사업, 교육보호사업, 지방이주사업을 통하여 자활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해 고용촉진, 직업재활, 직업안정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사회에 대한 대비와 단순인력의 구인난을 대처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자립서비스로는 후원 및 결연사업, 거택보호사업, 소득증대사업, 보건의료사업, 생활상담사업, 기타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빈곤에 대한 노력은 저소득 가족의 빈곤퇴치 혹은 해소를 위해서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한 이유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에 대하여 산업체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뿐만아니라 훈련기간이 짧고, 수료자의 취업기회가 미흡하며 저임금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또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직업훈련체제로 인하여 빈곤가족의 관심이 적어서 홍보

* 이 논문은 1996학년도부터 1997학년도까지 청주대학교의 학술연구조성비(특별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나 상담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평가하고 있다.³⁾ 그리고 생업자금 용자제도의 경우 제한적인 용자한도와 까다로운 절차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며 기타 사회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로 이들에게 빈곤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빈곤에 대한 자립지원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서 어인철 등은 급여지급기준이 엄격하여 수요가 가시화되지 못했고 가수요 현상을 보여줌으로서 한계를 드러내 그 대책으로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자립기반할 수 있도록 모색하였고,⁴⁾ 박용순은 적절한 자립기능의 부족, 자영업자본의 부족, 자립의 욕의 결여, 사회적 지원망과 관심의 부족, 대인관계능력의 결여, 가족관계로 인한 활동의 제한, 자립에 대한 계획성의 부족으로 파악하였으며⁵⁾ 그 대책으로 자영업을 갖도록 지원해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즉, 첫째로 지금까지의 빈곤해결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예방적, 생산적인 자립기반 조성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모든 사람은 가능한 자신의 노력에 의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보며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지원해야할 것이다. 빈곤지원을 위해서 다루어야할 분야는 삶의 질, 음식, 고용, 주거, 건강, 교육, 환경, 재산형성, 사회적응 등을 다루어야 한다.⁶⁾ 그러나 이 중에서도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것이다. 둘째로 빈곤의 원인은 지금까지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책임만을 강조하여 개인책임에 관심이 적었다.⁷⁾ 그러나 이제는 개인책임과 사회책임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빈곤의 원인은 전반적인 자원분배과정에서의 불평등으로 인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부족과 더불어 가족해체, 아동의 방랑, 무기력 등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을 위한 요소로서 거시적 입장에서 선거공약과 같은 정치적 수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프로그램을 남용한다면 자원의 낭비이다. 즉, 근로능력이 있다면 있는 만큼 적절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경제적 측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1) 박순일 외, 우리나라 빈곤화요인 분석과 대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4) 어인철 외 7인, 저소득층 실태변화와 정책과제: 자활지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p.338.

5) 박용순,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영업개발의 사례연구, 숭실대 박사논문, 1995. pp.52-57.

6) United Nations,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A Manual for School of Social Work and the Social Work Profession,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1994, p.30.

7) 김익균은 빈곤정책에서도 빈곤가족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하였다(김익균, 한일 빈곤정책의 전개과정의 비교연구: 생활보호제도를 중심으로, 부산대학사논문, 1996.).

제기될 수 있는 점은 빈곤에 대한 저소득층의 개개인과 가족이 자신의 상황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강화하는 임파워먼트접근(empowerment approach) 방법이 바람직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으로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실시되어온 빈민에 대한 고용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빈민 스스로가 이 프로그램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빈민들이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그들이 갖고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⁸⁾ 이것이 자신들의 성공으로 연결되어 자기의 사업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⁹⁾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지금까지 빈곤문제에 대하여 접근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거시적인 정책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¹⁰⁾ 미시적인 기술적 입장에서의 접근은 그다지 많지않다.¹¹⁾ 그러나 이러한 접근 역시 빈곤가족의 가족문제를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 빈곤가족의 실질적인 경제적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협동조합을 통한 접근¹²⁾과 자영업개발 사례연구가 있을 뿐이다.¹³⁾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는 빈곤으로 인하여 위축된 심리적 측면을 강화하고 이로부터 자신감을 갖게됨에 따라 위축되거나 잠재된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직장에 취업시키기보다는 자영창업을 시작하도록 함으로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가족을 심리적·경제적 측면에서 개발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원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우선 빈곤가족의 결여된 힘을 증강시키는 임파워먼트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빈곤가족에 적용시켜 이를 토대로 자영창업하는 과정에 연관시킨다. 즉, 이러한 방향에 따라 사회사업실천을 중심으로

-
- 8) 미국은 효과적인 대책을 위해서 그동안의 AFDC프로그램에서 TANF프로그램으로 옮기고 있다.
- 9) 어인철 외 7인, op.cit., 1995, pp.28-29.
- 10) 이혜경, "저소득 빈곤대책으로서의 생활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정책연구, 제16집, 1994, pp.197-211.
박순일, "빈곤실태와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과제;GNP 1만불 시대의 절대빈곤층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사회보장연구, 제12집, 1995, pp.17-40.
- 11) 김수환, 빈곤가족치료를 위한 사회사업적 접근, 대구대박사논문, 1987.
조홍식, 도시빈민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사업실천에 관한 연구: 생태체계적 관점의 문제 사정도구 개발과 적용을 중심으로, 서울대박사논문, 1991.
이인정, "빈민지역거주가족에 관한 연구:문제와 개입을 중심으로," 전북대사회과학연구, 제19집, 1992, pp.159-179.
- 12) 권순원, "빈곤대책의 재조명;협동조합을 통한 탈빈곤운동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제15집, 1993, pp.65-87.
- 13) 박용순, op.cit., 1995.

로한 심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가족개발을 통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임파워먼트와 가족

1. 임파워먼트 이론(Empowerment Theory)

임파워먼트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Friedmann은 임파워먼트를 ‘힘을 형성하거나 획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빈곤은 빈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힘의 근원이 되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시결정에서 자율성을 강조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정치적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⁴⁾ 사회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수준에서 시작하여 지역사회나 정책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수준에서 출발한다.

사회사업실천에서 임파워먼트가 사용된 것은 Solomon의 저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용어는 아니며 단지 개념을 재정의하였기 때문에 그 역사는 사회사업의 역사가 출발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으며¹⁵⁾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이론가와 실천가는 일반적인 실천원칙을 파악하여 임파워먼트를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그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행동으로서 개인적, 대인적, 정치적인 힘을 증가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¹⁶⁾

이러한 정의에 따른 사회사업실천을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강점에 초점두고 협동적으로 일하며 개인적 힘과 정치적 힘을 연결시키는 것이다.¹⁷⁾ 그리고 최근에 자주 등장한 사례관리에서 자원이나 서비스와 같은 외적 자원에 대한 활용은 활발하게 다루어지지만 개인에 대한 심리적인 내적 자원에 대한 활용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례관리를 보다 바람직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를 보강할 필요

14) Friedmann, John, Empowerment: The Politics of Alternative Development, Cambridge: Blackwell, 1992, pp.66-71.

15) Simon, Barbara L., The Empowerment Tradition American Social Work: A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1.

16) Gutierrez, Lorraine M, "Beyond Coping: An Emporment Perspective on Stressful Life Event,"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21, 1994, p.202.

17) Dubois, Brenda, Karla K. Miley, Social Work: An Empowering Profession(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1996, pp.26-28.

가 있는 것이다.

Dunst, Trivette, and Lapointe는 임파워먼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문헌을 검토한 결과 유용한 준거틀로서 6가지 차원을 (1)철학 (2)패러다임 (3)과정 (4)파트너쉽 (5)수행 그리고 (6)지각 등으로 나누어 <표 1>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⁸⁾

<표 1> 임파워먼트의 주요한 차원, 구성요소와 예

차원	구성요소	예
철학	원칙	추정된 사람들의 능력, 가치있는 다양성
패러다임	재산	강점중심, 친활동성, 숙련지향
과정	가능한 경험	기회와 생활사건의 학습
파트너쉽	협동	상호적 존경, 공유된 의사결정, 협동
수행	행동/능력	지식, 기술, 개인적 성장, 협력행동
지각	기여	자기효율, 개인적 통제, 자긍심, 통제소재, 정치적 효율

사회사업실천의 입장에서 이러한 준거틀은 철학과 패러다임을 갖고 개입하는 원칙과 관점을 제공하여 클라이언트-워커 관계의 본질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유용한 개입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임파워먼트의 6가지 차원을 파악할 때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과 같은 분석수준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사건에 따른 영역에 전략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략기술을 적용하기 전에 왜 임파워먼트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클라이언트가 지니고 있는 무기력이나 절망감에서 적극적인 상태로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가지의 측면에서 심리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임파워먼트 개입을 할 때 전제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다.¹⁹⁾

첫째로 자기효율(self-efficacy)로서 실제 생활속에서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만들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을 강조한다. 둘째로 집단의식(group consciousness)을 발달시켜 나간다. 이는 개인과 집단의 경험이 정치구조에 의해 어떻게 영향받고 있는가를 인식시키고 사회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형성시

18) Dunst, C. J., Trivette, C. M., and Lapointe, N., "Toward Classification of the Meaning and Key Element of Empowerment," *Family Science Review*, 5(1&2), 1992, p.119.

19) Gutierrez, Lorraine M., "Working with Women of Color: An Empowerment Perspective," *Social Work*, No.35, 1990, pp.149-153.

키며 개인과 집단 혹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운명을 공유한다는 감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세째로 자기비난(self-blame)을 줄여 나간다. 즉, 자기비난이나 자기비하를 줄여나감으로서 힘을 증강시켜나가고 나아가 의식적인 측면을 고양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네째로 변화에 대한 자기책임(personal responsibility)을 갖도록 한다.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무력한 객체'가 아닌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전제에 따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상호신뢰, 상호존경 그리고 힘을 공유하는 원조관계를 창출하고 클라이언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며 그리고 그들 스스로 적당한 해결책을 선택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체계의 능력을 인식시킨다. 그리고 현재의 강점을 찾아내어 체계화하고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며 상호적 지지와 상호적 원조를 위한 집합적 구성체도 창출한다. 따라서 파트너십의 목적은 자긍심과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힘을 갖는 과정에서 그들의 강점을 스스로 활용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나태하고 게으른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음식, 주거에 대한 관심이나 열망을 찾아내 문제해결하는 방법과 연관을 지으며 때에 따라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고 클라이언트체계를 위한 대변활동을 한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은 ①클라이언트가 선호하고 보여주는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정한다. ②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에게 최대한으로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자신이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여 많은 것을 묻는다. ④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찾고 체계화한다. ⑤클라이언트의 요청, 쟁점, 욕구에 대한 독특한 구성에 따라 개입한다. ⑥실천에서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한다. ⑦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인내를 갖도록한다.⑧사회사업가의 힘의 기여와 힘을 계속 파악한다. ⑨일반적인 선에 기여하는 지식을 활용한다.²⁰⁾

임파워먼트 개입에 대한 바람직한 성과는 클라이언트가 생활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얻고 지속적인 숙련속에서 심리적 차원에서 자기효율을 지각함으로써 나타날 것이다.

2. 가족 임파워먼트

빈곤에 대한 임파워먼트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빈곤가족이 생활상태를 증진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의 힘(power)이 결여되었다는 가정에서 시작되며 가족단위로 확대하여 임파워먼트 개입을 적용함으로써 심리적 측면에서 출발하여 사회적이나 경제적 측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20) Simon, Barbara L., op. cit., pp.24-31.

지금까지 빈곤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질적인 경제적 측면에서의 원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방법은 그다지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 이유로서 중요한 사실은 사회사업의 기본적인 철학적 입장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한다는 실천중심의 사상을 많은 학자나 실천가들이 인정하였지만 체계화시키지 못했던 것이다.²¹⁾ 즉 클라이언트는 그들이 결손, 문제, 병리 그리고 질병을 가졌기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된다는 병리론 입장에서 사회사업실천이 전개된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빈곤가족을 원조할 때 이와 같은 문제나 병리에 집착하므로써 실제적으로 성장, 개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사업실천에서는 첫째로 저소득층의 욕구에 대하여 소위 '원인'보다는 '기능'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²²⁾ 둘째로 치료과정, 결과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기능에 대하여 클라이언트는 상담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기능과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친활동적(pro-active)인 개체로 지각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반응적 유기체로 봐야한다.²³⁾ 따라서 저소득층의 개개인과 가족에 대한 현재의 기능적 상황을 질병관점보다는 강점관점으로 지각할 때 그들의 능력을 개발의 가능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가족개발은 강점관점(strength perspective)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강점관점에서 원조할 때 이들의 심리적 특성의 하나인 약해진 힘(powerlessness)을 강화시켜서 힘을 발휘하여 가족을 심리적·경제적으로 충분히 개발시킨다.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임파워먼트를 적용함으로써 가치있는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치있는 자원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획득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의 구성원이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강점을 찾아내고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식시킨다. 또한 그동안 살아오면서 혹은 문제해결과정에서 획득한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가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인식시킨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해결에 개입하여 원조할 경우에는 동료관계 또는 파트너로 인식시키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서 학교, 복지사무소, 법원 등과 같은 사회제도가 심리적으로 억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인식시킨다.²⁴⁾

21) Saleebey, Dennis, "Power in the People," in Dennis Saleebey(ed), The Strength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Logman, 1992, p.3.

22) Johnson, Louis C., Social Work Practice: A Generalist Approach(5th ed.), Boston: Allyn and Bacon, 1995, p.5.

23) Maluccio, Anthony, Learning from Clients: Interpersonal Helping as Viewed by Clients and Social Workers, New York: Free Press, 1979, p.399.

그리고 빈곤가족간에도 파트너십으로 연결된 협력체계로서 자조집단을 구성함으로써 힘을 증강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여기에서 힘을 얻게되는 기전(mechanism)²⁵⁾은 첫째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계획적인 소집단을 조직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자조집단과 같은 장에서는 역할을 모두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역할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이고 그리고 역할을 수행하기 가능한 사람들이기보다는 수행할 과제가 주어질 수 있는 장소이다. 여기에서 결정된 상황에 따라 구성원 스스로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능력, 힘, 통제 등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두번째로 회원들에게 책임감을 갖도록 격려함으로써 수용과 지지와 같은 조직적인 문화를 형성한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받는 개인들에게 의도적인 모형을 제공하고 서로서로를 지지할수있도록 구성원간의 모임을 허용한다.

이렇게 하면서 세째로 상황에 대한 해석방법을 강조한다. 자신들의 문제를 장애가 아니라 자기수용과 능력의 획득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받아들이도록 강조한다.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결점없이 행동하기를 기대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개인적 자긍심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지나치게 의심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터무니 없는 비판을 무시한다. 끝으로 자신의 사업적 성공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책임있게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에 입각하여 사회사업실천에서 힘을 증강시키는 임파워먼트 기법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 문제에 대하여 클라이언트가 수용하는 방법을 받아들이고 현재 상황에 대한 강점을 확인시키며 동시에 증강시킨다. 예를 들어 억압적인 조직에 직면시킴으로서 강점을 보다 증강시킬 필요성도 이해시킨다. 이어서 힘에 대한 불균형적인 분배과정을 이해시키면서 문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의식을 높이고 관련되는 특정한 기능, 예를 들어 자기주장 등의 생활기술을 발달시킨다. 그리고 필요한 구체적인 자원이나 정보를 얻을려면 때에 따라 대변할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현재의 클라이언트에게 놓여진 상황에 따라 중요시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가 빈곤가족을 원조하는 관계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역할은 클라이언트가 다른 원조자나 전문가와의 경험에서 힘의 결여된 상태(powerlessness)로 빠지는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와 존중을 기초로 하여 클라이언트의 동료

24) Solomon, Barbara B., Black Empowerment: Social Work in Opressed Communit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6, p.26.

25) Rappaport, Julian, Thomas M. Reischl, and Marc A. Zimmerman, "Mutual Help Mechanisms in the Empowerment of Former Mental Patients," in Dennis Saleebey(ed.), The Strength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Logman, 1992, pp.84-97.

로서 측면에서 원조하는 자, 조직화를 추진하는자, 상담조언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기대된다.

Ⅲ. 가족개발

1. 자영창업을 통한 가족개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의 일차적 목표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된 욕구로서 경제적·심리적·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일이다. 그래서 이들을 원조하고 개입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사업실천방법을 적용한 복지서비스기관은 최근들어 효율과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왜냐하면 복지기관의 책임성과 관련하여 차등지원과 같은 대책이 강구되기 때문이다.

빈곤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같은 입장에서 관심을 두어 최근들어 자활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로서 최근의 복지개혁에 대한 노력이 저소득 가족을 원조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스스로 충실하도록 하는데(economic self-sufficiency) 목적을 두어 경제적인 소득을 지원한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지금까지 적용했던 소득이전, 교육, 직업훈련을 통하여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의존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부족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은 미시적 수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지 못하여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지만 경제적으로 스스로 충실하려고 하는 저소득 가족의 노력에 비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 즉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장애가 되는 경우로서 지역사회에서 일할 자리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임금이 낮으며 그리고 높은 실업률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환경체계와의 에너지 교환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들의 경제적인 소득을 지원할만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은 전통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알선이나 생업자금융자와 같은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방법보다는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아울러 자립할 때까지 가족이 힘을 갖도록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해온 소득이전 프로그램과 자립기반조성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면 소득이전 프로그램은 도입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일정한 혹은 그 이상의 비용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반면에 자립기반조성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일단 정착되면 비용이 절감된다. 그리고 경제적 혹은 심리적 측면에서 소득이전 프로그램에서는 의존성을 키우지만 자립기반조성 프로그램은 독립심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²⁶⁾

이러한 접근이 일반적으로 복지기관의 영역에서 벗어난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저소득 가족을 경제적 소득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입이라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과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개입과 거시적 수준에서 소득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구축하고 이들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접근을 통하여 경제적 기회를 창출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자영업을 개발시키주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모든 저소득 가족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전략에 일부만이 해당될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평가를 통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소득 가족이 경제적으로 스스로 충실하도록 가족중심 서비스에 자영업을 갖도록하여 가족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2. 자영업을 위한 개입과정

빈곤가족에게 스스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과정은 전반적으로 사례관리에 따른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사업실천은 사례관리를 적용시키고 빈곤가족 개개인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심리적 측면은 임파워먼트 접근으로 개입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자영업을 갖도록 한다.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성요소는 6가지로 분리하여 이해된다. 이에 대한 과정모형은 Raheim의 과정에 평가를 추가하였으며 대상자모집, 사정, 서비스계획준비, 자원연결, 점검 및 평가로 나누었다.²⁷⁾ 그리고 참여자의 개인이나 가족에게 임파워먼트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기법은 모든 구성요소를 통하여 적용된다.

1) 대상자 모집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모집하는 방법은 시군구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문요원, 지역사회와의 관련기관이나 단체, 신문이나 잡지를 통한 기사와 광고, 직업훈련센터, 자활센터 등을 통한다. 관심있는 개인과 가족은 1차적인 정보제공 모임에 참석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자영업의 운영에 따른 위험, 요구, 보상 등 그리고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는가를 설명을 듣는다.

26) 어인철 외 7인, op.cit., 1995, p.31.

27) 나동석, “재가복지센터의 사회사업실천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26호, 1995, pp.111-134.

설명은 창업훈련가(business trainer)가 맡게 되는데 자격은 가능한 사업을 실제적으로 운영해야한다. 그 이유는 현재 사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이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참여한 대상자들이 그들의 개업하려는 사업에 대한 동기, 과정, 어려움 등에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으며 사업체의 협회나 연합회의 구성원과 친하기 때문에 준비과정 또는 창업 후에 정보제공과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그리고 정보제공 모임 후에 참여자는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자영업이 자신들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인지를 결정한다.

자기 스스로가 자영업을 시작하겠다는 선택과정은 훈련프로그램 동안에 가족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즉, 가족개발을 시행하는 임파워먼트 개입의 시작이다. 가족개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참여한 가족과 개별적인 모임을 갖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초점은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적절하고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시기로서 팀의 직원이 결정하여 주기보다는 개인 스스로가 다음에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하므로써 대상자의 능력을 강화한다.

2) 사정

참여하기로 결정한 대상자는 사업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각각의 사업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거리를 의논한다. 사회복지사는 모임을 지도하고 참여자에게 사업의 아이디어에 관여하지않고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사업아이디어를 찾도록 돕는다. 업종을 추천한다면 대부분의 사업은 서비스 혹은 소매상으로서 잔디보호 및 조경, 경비, 자판기, 골동품 및 위탁판매, 자동차정비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참여자는 개업에 필요한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앞으로의 잠재적인 고객이 얼마나 되는가, 광고를 내고 홍보할 필요는 있는가, 있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판매가격은 어느 수준으로할 것인가, 어떤 위치에 점포를 낼 것인가,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도구는 어느 정도나 준비해야하는가, 동원할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등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여 사업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참여자가 해야할 과제로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에 임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사회기술을 포함한 생활기술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기술에 새롭게 얻게된 것을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체계화한다. 그리고 여러가지의 사안중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고기술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능력을 증진시킨다. 나아가 자신들의 경제적 안녕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갖을 수 있도록 참여자의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증가시키는데 목표를 둔다.

학습과정은 우선적으로 강의와 약간의 역할 연습 중심으로 시행하고 점차적으

가족개발을 통한 빈곤문제해결에 관한 연구

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실제적인 실행으로 옮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업체를 방문하여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가를 파악하는 동시에 업주와 면담하여 교실에서 얻은 자료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한 관련정보나 자료에 대한 찾는 방법을 알아내고 접근하여 얻어 낸다. 그리고 이러한 자영업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가, 스스로 설정한 방향에 대하여 능력을 확인시킨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완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대상자가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완성하게 한 후 대상자와 함께 사업아이디어에 대하여 반복하여 의논하고 등록하게되는 최종적인 결정은 자기결정의 원칙에 따라 참여한 대상자 스스로가 한다.

사정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참여한 가족과 만나면서 구성원에게 사정에 필요한 세대간도표(genogram), 생태지도(ecomap), 생활사 등을 포함한 사정도구를 사용한다. 목표설정에 이어 구체적인 하위목표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시행시기를 정하여 목표성취에 필요한 자원을 파악한다. 이르는 동안에 임파워먼트 개입이 적용되면서 사회복지사와의 신뢰관계, 상호존경, 힘의 공유 등을 창출하고 현재 상황에 따라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하는지를 파악하도록하고 스스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가족의 능력을 인식시킨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족 스스로가 자신들의 강점을 파악하여 체계화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사고를 돕는다. 이러한 문제해결과정은 가족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고 부가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파악한다. 이는 다른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 가족을 옹호해야하고 또한 스스로도 옹호하는 방법을 알도록 돕는다.

프로그램의 현재 단계와 다음 단계에서는 재정관리와 자긍심 강화(self-esteem building)가 중요한 과제이고 훈련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접근하는 부분이며 지속적인 힘을 갖도록 꾸준한 원조를 제공한다.

3) 서비스계획 준비

서비스계획준비에서는 참여한 대상자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배우게 되는 워킹에 참석한다. 매주 스스로 조사한 자료를 검토해 보고 교실에서 다른 참여자들과 정보를 나누는 계획을 세우며 1주일에 한 번씩 훈련자와 개별적인 논의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참여자는 초안의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다른 구성원에게 설명할 시간을 정한다.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과정과 동료들에게 설명하는 일은 임파워먼트 개입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갖는다. 참여자의 자기 효율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목적의식이 뚜렷해지고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해지며 타인의

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오히려 지킬 수 있는 방어능력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그들의 지니고 있는 힘에 대한 감각은 스스로 계획을 개발함으로써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통제에 대한 감각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로 부터 그들이 어떤 위치를 원하는가로 움직이는 방법을 알게되는 청사진을 가지므로서 증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공동체를 구성하게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임파워먼트 개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여자 스스로는 개인적인 사업계획에 초점둔 반면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업종과 계획의 크기에 따라 점차적으로 구조화되면서 동료들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의논할 기회를 갖게 되고 사업계획을 순환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게된다. 이 때 발전된 구성원간의 상호적 지지는 일부의 참여자에게는 훈련과정뿐만아니라 지속적인 이어질 수 있는 상호적 지지집단을 갖게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4) 자원연결

자원연결에서 중요한 일은 창업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을 얻을 수 있는 자원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용자가 가능한 방법은 생업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 자립자조기금, 국민연금, 은행, 가족의 친척이나 친구로 부터 가능할 것이다.

5) 지속적인 점검과 기술적 지원

여기에서는 적용되는 점검은 개업했을 때부터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사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해결책을 적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확인하면서 자율성을 존중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하며 특히 조언이나 권고를 무조건 수행하지 않도록 관계를 맺는다. 만일에 요청한다면 팀에서는 재정관리, 인사관리, 광고 마케팅, 공급자 신분, 문제해결에 준하는 정보와 지지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여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족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 안되면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에 초점두어 의논한다.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얻고 성취해야할 목표에 따른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하며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경제적인 환경뿐만아니라 삶의 다른 모습을 좀더 통제하도록 한다. 가족개발을 통하여 가족에게 빈곤에 대한 나약한 사회적 노력을 극복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그들의 삶에 대한 경제적 환경을 조절하도록 돕는다.

6) 평가

평가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팀보다는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참여자의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제3자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차원은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지만 이 가족개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심리적 측면에서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개입의 효과를 파악하고 사업을 통해 경제적 측면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가족개발 이전의 저소득이고 소외되었던 상태에서 경제적인 변화를 갖거나 자긍심을 가져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상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가족개발을 통하여 빈곤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선 가족을 임파워먼트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부족한 가족들에게 개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빈곤가족에게 시행한 프로그램은 물질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에 집중하였으며 심리적 측면에서의 가족문제에 대한 개입은 주로 가족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경우는 가족의 기능을 바로 잡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기유발시키기 위한 방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기는 유발되었지만 소득을 위한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성향이 강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사회사업실천에서 등장하고있는 임파워먼트 개입은 전통적인 실천에 비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접근으로서 사회사업이 'helping'에서 'empowering'으로 그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경향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1993년의 연설에서도 빈곤대책의 기본을 임파워먼트에 둘 것을 약속하였다. 빈곤가족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자활지원센터의 운영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적용하여 왔던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만큼 임파워먼트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서 기술하는 방법이 자활센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이나 관련단체에서 여건이 조성되는 기관에서 시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사는 임파워먼트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사례관리실천방법도 파악해야 한다. 또한 팀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창업훈련가 역시 자원으로 활용해야하거나 고용해야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복지사만이 빈곤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전문가가 아닌 팀웍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빈곤문제를 위한 완전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여기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램이 그동안 실시해왔던 취업중심의 직업훈련이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한다는 주인의식을 갖도록하고 힘을 증가시켜 소득을 향상시킨다면 일부의 빈곤가족에게는 중요한 선택이 된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시행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일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자영창업을 보다 포괄적으로 제시한 만큼 다양한 업종에 대비한 준비가 있어야한다. 고용보험의 실시에 따라 직업상담원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